

물리치료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비교 분석: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안청좌 · 김명철[‡] · 이민수 · 김승균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thical Values of Physical Therapy: Focused on Physical Therapists and Physical Therapy Students

Ahn Chungjoa, PT, MS · Kim Myungchul, PT, Ph.D[‡] · Lee Minsoo, PT, MS
Kim Seungkyun, PT, MS
Dept. of Physical Therapy, Eulj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was to discover the value of ethics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his study was launched to provide the bedrock for this field of study by means of getting the data about the current address of value of ethics.

Methods: Thi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with 900 students from seven different universities in Republic of Korea (3, 4-year colleges) and with 350 clinical physical therapists who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tool for the research was to revamp and supplement ethics codes in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nd a set of questions of Jeom Hui Youk (1992), Young Ran Choi (2001), etcetera and each question was provided with different points by the set of measurement we cre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Comparing the average ethics score both on the general information of both groups and the value of ethics of both groups, we were sure to say that the average ethics score of ethics value was significantly more meaningful than that of general information.

Conclusion: Physical therapy students establish a correct ethics values and physical therapists should have training in ethic values education are combined accordingly to correct the wrong ethically values and clearly established.

Key words : physical therapy, ethics values, survey

[‡]교신저자:

김명철 ptkmc@eulji.ac.kr, 031-740-7231

I. 서 론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로 인해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를 가진 지식인이 도덕불감증이나 양심불감증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또한 지식층의 교육수준과 윤리적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교육이 지식과 기능만 중시하고 영혼과 마음을 닦는 교육을 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신성남, 2015).

전문직이란 전문적인 지식구조를 갖추고 전문 직능단체를 통한 사회 활동을 하며 전문가의 행동을 지도하는 윤리강령이 있어야 한다(권선주,2003; 마미옥, 2005).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확고한 윤리적 가치를 정립하여 간호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도우며 지지해 주는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말기환자의 질적인 삶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문정란, 2013)는 연구가 있었다.

보건의료의 전문직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는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생명윤리를 겸비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행해야 하며, 이것은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재활의 목표실현을 가능하게 한다(장수경, 1991).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상황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윤리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물리치료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물리치료 윤리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강의, 문제 중심 교육, 학생 주도 학습, 비디오, 사례형 분석을 포함한 윤리적 근거와 의사결정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실험하고 있다(Laliberte 등, 2015). 이렇듯 현대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기본적 자질 추구에서 먼저 학생시절부터 윤리적 차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대학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가진 임상가들의 직무윤리를 요구하고 있다(Kulju 등, 2013; Hudon 등, 2014).

직업 윤리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직업윤리 교육이 계통적, 구체적으로 강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학윤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부합되는 보건 의료전문인으로서의 물리치료사를 교육 양성하는데 있어, 직업윤리 교육은 필수 불가결의 분야이며, 반드시 교육되어야 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철학적, 윤리적 사고를 기반에 두고 교육되어야 된다고 본다(장수경, 1991). 또한 우리 사회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 윤리학적 접근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와 관련된 윤리교육은 의료종사자에 대한 전문 직업 윤리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건의료인 조차도 보건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원칙이나 규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보건 분야에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주열, 1998).

아직까지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현장 실습을 중요시하는 전공 교육과정에서는 인성함양이나 서비스 정신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한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조경원, 2008).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치료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다. 이는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장차 물리치료사가 되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판단에 대해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함으로써 보다 질적인 치료 제공과 직무 만족도를 얻기 힘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바람직하고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장차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어떤 기관이 다른 지역의 기관들에 비해 더욱 뛰어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근무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정신을 더욱 함양하고 현장 적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조경원,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와 미래의 물리치료사인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어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윤리적 행동을 보이는데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며,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물리치료 윤리 의식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지법을 이용한 단면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7개 대학교(3, 4년제)의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수도권 지역에서 임상 재직 중인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7 프로그램(Faul 등, 2007)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치료학과 학생 총 900명, 물리치료사 총 350명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8월 21일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 선정된 설문 요원 12명이 1개 대학과 기관 및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취지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직접 회수하였고 6개 학교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우편을 통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에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될 것을 명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76부로 회수율은 94%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45부를 제외한 총 1,131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4.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학생 설문지 9문항, 임상 설문지는 12문항,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가치관 정도를 알아보는 9문항으로 선행 연구된 설문내용을 조합하여 본 목적에 맞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영란(2001), 최보람(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 윤리교육 경험의 유무, 윤리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물리치료 윤리강령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첨부).

5.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1.0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물리치료 윤리가치관 수준은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윤리 점수 수준의 차이는 일원 분산 분석(one way ANOVA)과 사후검정의 일종인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 비교

본 연구 대상자의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를 살펴보았다(표 1-1).

윤리점수 40점 만점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의 순위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여자 29.225점, 남자 29.1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지역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광역시 29.316점, 농어촌 29.188점, 중소도시 29.171점, 서울특별시 28.9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경제 상태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넉넉한 편 28.773점, 보통 29.328점, 어려운 편 28.99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연령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30대 30.800점, 20대 29.326점, 10대 28.969점, 40대 이상 28.6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형제 수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한명 29.423점, 두명 29.034점, 세명 이상 28.250점, 없음 28.1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의료종사자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있다” 29.224점, “없다” 29.1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표 1-1. 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 비교

| 특성 | 구분 | 물리치료학과(n=828) | |
|------|--------|---------------------------|---------|
| | | M±SD | P |
| 성별 | 남자 | 29.166±3.784 ^a | 0.819 |
| | 여자 | 29.225±3.361 | |
| 연령 | 10~19세 | 28.969±3.227 | 0.372 |
| | 20~29세 | 29.326±3.656 | |
| | 30~39세 | 30.800±2.864 | |
| | 40세 이상 | 28.600±3.286 | |
| 지역 | 서울특별시 | 28.952±3.724 | 0.788 |
| | 광역시 | 29.316±3.600 | |
| | 중소도시 | 29.171±3.284 | |
| 경제상태 | 농어촌 | 29.188±3.445 | 0.288 |
| | 넉넉한 편 | 28.773±4.305 | |
| | 보통 | 29.328±3.383 | |
| 형제 | 어려운 편 | 28.994±3.521 | 0.019 * |
| | 없음 | 28.192±3.248 | |
| | 한 명 | 29.423±3.437 | |
| | 두 명 | 29.034±3.778 | |
| 의료종사 | 세 명이상 | 28.250±3.209 | 0.929 |
| | 있다 | 29.224±3.651 | |
| | 없다 | 29.199±3.460 | |

^a평균±표준편차 ($P<0.05$)

다음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표 1-2).

먼저 성별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여자 28.209 점, 남자 27.61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지역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중소도시 28.661점, 서울특별시 28.313점, 광역시 27.266점, 농어촌 26.9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경제 상태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넉넉한 편 28.500점, 보통 28.122점, 어려운 편 27.5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연령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40대 이상 29.864점, 30대 28.484점, 20대 27.3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형제 수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세 명 이상 29.143점, 두 명 28.622점, 한 명 27.483점, 없음 26.1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의료종사자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있다” 28.387점, “없다” 27.8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표 1-2. 물리치료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 점수 비교

| 특성 | 구분 | 물리치료사(n=303) | |
|------|--------|---------------------------|---------|
| | | M±SD | P |
| 성별 | 남자 | 27.617±3.509 ^a | 0.162 |
| | 여자 | 28.209±3.522 | |
| 연령 | 10~19세 | - | 0.000 * |
| | 20~29세 | 27.302±3.410 | |
| | 30~39세 | 28.484±3.552 | |
| | 40세 이상 | 29.864±3.125 | |
| 지역 | 서울특별시 | 28.313±3.403 | 0.013 * |
| | 광역시 | 27.266±3.503 | |
| | 중소도시 | 28.661±3.546 | |
| 경제상태 | 농어촌 | 26.933±3.011 | 0.385 |
| | 넉넉한 편 | 28.500±4.703 | |
| | 보통 | 28.122±3.404 | |
| 형제 | 어려운 편 | 27.500±3.639 | 0.000 * |
| | 없음 | 26.136±4.015 | |
| | 한 명 | 27.483±3.333 | |
| | 두 명 | 28.622±3.336 | |
| 의료종사 | 세 명이상 | 29.143±3.595 | 0.274 |
| | 있다 | 28.387±3.605 | |
| | 없다 | 27.873±3.494 | |

^a평균±표준편차 ($P<0.05$)

2.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의 비교

본 연구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2-1).

윤리 점수 40점 만점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항목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의 순위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가치관 인지 수준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매우 확고하다” 30.351점, “가끔 혼동된다” 29.065점, “상황에 따라 바뀐다” 28.5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윤리강령 인식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대체로 잘 알고 있다” 30.358점, “보통이다” 29.249점, “대체로 모른다” 28.1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교육 경험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교육 경험 있다” 29.403점, “교육경험 없다” 28.9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교육 현황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충분

하다” 29.865점, “잘 모르겠다” 29.068점, “충분하지 않다” 28.7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있다” 30.445점, “잘 모르겠다” 27.867점, “없다” 26.5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그렇다” 29.660점, “잘 모르겠다” 28.679점, “아니다” 27.81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교육 필요성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필요하다” 29.352점, “필요하지 않다” 27.7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표 2-1. 학생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 비교

| 특성 | 구분 | 물리치료학과(n=828) | |
|------------|-------------------------------------|---------------|---------|
| | | M±SD | P |
| 가치관 | 매우 확고하다 가끔 혼동된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 | 30.351±3.794a | 0.000 * |
| | | 29.065±3.260 | |
| | | 28.572±3.377 | |
| 윤리강령 인식 |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모른다 | 30.358±3.740 | 0.000 * |
| | | 29.249±3.323 | |
| | | 28.172±3.503 | |
| 교육경험 | 교육경험 있다 교육경험 없다 | 29.403±3.539 | 0.205 |
| | | 28.987±3.464 | |
| 교육현황 |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 29.865±3.579 | 0.001 * |
| | | 28.742±3.686 | |
| | | 29.068±3.247 | |
| 교육참여 여부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 30.445±3.321 | 0.000 * |
| | | 26.531±3.505 | |
| | | 27.867±2.936 | |
| 윤리문제 심각 |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 29.660±3.526 | 0.000 * |
| | | 27.817±3.508 | |
| | | 28.679±3.222 | |
| 교육필요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29.352±3.500 | 0.000 * |
| | | 27.727±3.223 | |

^a평균±표준편차 ($P<0.05$)

다음 물리치료사들의 윤리적 가치관 항목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표 2-2).

먼저 가치관 인지 수준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매우 확고하다” 29.142점, “가끔 혼동된다” 27.703점, “상황에 따라 바뀐다” 26.9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윤리 강령 인식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대체로 잘 알고 있다” 28.943점, “대체로 모른다” 27.714점, “보통이다” 27.59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교육 경험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없다” 28.090점, “있다” 27.8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교육 현황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충분하지 않다” 28.333점, “잘 모르겠다” 27.606점, “충분하다” 27.0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있다” 29.651점, “잘 모르겠다” 27.036점, “없다” 25.8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그렇다” 28.694점, “아니다” 26.957점, “잘 모르겠다” 26.9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교육 필요성에 따른 윤리 점수 평균을 보면 “필요하다” 28.307점, “필요하지 않다” 25.1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표 2-2. 물리치료사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 비교

| 특성 | 구분 | 물리치료사(n=303) | |
|------------|-------------------------------------|---------------|---------|
| | | M±SD | P |
| 가치관 | 매우 확고하다 가끔 혼동된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 | 29.142±3.939a | 0.000 * |
| | | 27.703±2.927 | |
| | | 26.911±3.348 | |
| 윤리강령 인식 |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모른다 | 28.943±3.761 | 0.011 * |
| | | 27.590±3.304 | |
| | | 27.714±3.591 | |
| 교육경험 | 교육경험 있다 교육경험 없다 | 27.852±3.467 | 0.569 |
| | | 28.090±3.563 | |
| 교육현황 |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 27.077±3.261 | 0.100 |
| | | 28.333±3.632 | |
| | | 27.606±3.319 | |
| 교육참여 여부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 29.651±3.094 | 0.000 * |
| | | 25.811±3.807 | |
| | | 27.036±3.145 | |
| 윤리문제 심각 |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 28.694±3.553 | 0.000 * |
| | | 26.957±3.508 | |
| | | 26.932±3.040 | |
| 교육필요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28.307±3.419 | 0.000 * |
| | | 25.103±3.211 | |

^a평균±표준편차 ($P<0.05$)

IV. 고 찰

본 연구는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여 물리치료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의 분포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윤리 점수를 분석한 결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평균 윤리 점수는 성별, 지역, 경제 상태, 연령, 가족 중 의료종사자 유무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0.05$) 형제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학년에 따라 2학년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3학년, 4학년 순이었는데 이는 이제 막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간호학생보다 임상실습 경험이 더 많은 3,4학년생의 간호윤리 가치관의 점수가 낮은 것은 임상실습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장수현, 1987). 물리치료사들의 평균 윤리 점수는 성별, 경제 상태, 가족 중 의료종사자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P>0.05$) 연령, 지역, 형제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 중 공통적으로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형제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형제의 수보다는 형제의 유무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며 형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윤리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윤리관 특성에 따른 점수를 분석한 내용이다.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 윤리관 특성에 따른 점수는 표 2-1과 표 2-2에 제시되어 있으며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비교하였다.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에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모두 “매우 확고하다”가 가장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최영란(2001)의 연구에서 보인 학생이 간호사보다 간호윤리 가치관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여 온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에 비해 자율적인 사고를 통한 교육과 윤리이론, 윤리원칙,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재인식하게 되어 윤리적 가치관에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한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한 물리치료사보다 윤리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여러 가지 실무적 현상에 부딪히면서 학생 때의 윤리적 가치관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윤리강령인식에 대한 질문에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모두 “대체로 잘 알고 있다”가 가장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윤리강령을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윤리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윤리강령의 인식정도와 윤리관 점수는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모두 “있다”가 가장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교육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 물리치료사보다 윤리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문제의 심각에 대한 질문에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모두 “그렇다”가 가장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모두 윤리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물리치료사 모두 “필요하다”가 가장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물리치료사보다 윤리관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대상자들의 윤리관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들이 윤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윤리 교육에 참여하려는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논문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야기되는 윤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며, 이것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윤리관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보건의료 종사자조차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보건의료 학생들이 향후 업무에 종사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보건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주열, 1998)고 밝혔다.

V. 결론

본 연구는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물리치료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물리치료 윤리의식 사이에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물리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에서는 윤리강령인식, 교육 참여여부, 교육 참여의사, 윤리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물리치료학과 교과 과정 내에 윤리적 가치관, 윤리이론, 윤리 원칙을 포함하는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물리치료 학생들이 바람직하고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장차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선주(2003).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마미옥(2005). 직업재활종사자의 윤리적 가치관과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정란(2013).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성남(2015).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주열(1998). 보건분야에서 윤리교육.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15(1), 67-77.

장수경(1991). 물리치료와 직업윤리와 관계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3(1), 91-96.

장수현(1987).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가치관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경원(2008). 보건의료 직업윤리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 8(10), 224-233.

최보람(2010).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영란(2001).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의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Faul F, Erdfelder E, Lang AG, et al(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 Res Methods, 39(2), 175-191.

Hudon A, Laliberté M, Hunt M, et al(2014). What place for ethics? An overview of ethics teaching in occupational therapy and physiotherapy programs in Canada. Disabil Rehabil, 36(9), 775-780.

Kulju K, Suhonen R, Leino-Kilpi H(2013). Ethical problems and moral sensitivity in physiotherapy; a descriptive study. Nurs Ethics, 20(5), 568-577.

Laliberté M, Hudon A, Mazer B, et al(2015). An in-depth analysis of ethics teaching in canadian physio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Disabil Rehabil, 37(24), 2305-2311.

부록 1.

「물리치료 윤리 교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조사 설문지」
(물리치료사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물리치료 윤리 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윤리 의식 정도를 알아보고 앞으로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귀하께 쓰이는 통계자료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지도 교수 : 김 명 철
연구자 : 안청좌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거나 답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가 지금까지 주로 거주한 지역은?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
4. 귀하의 학력은? ① 3년제 졸업 ② 4년제 졸업 ③ 석사 ④ 박사
5. 귀하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한 년도는 언제입니까? ()년
6. 물리치료사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 - 3년 ③ 3 - 5년 ④ 5년 이상
7. 결혼의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이혼, 사별, 별거)
8.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대학병원 ② 종합병원 ③ 개인병원 ④ 기타 (ex. 보건소, 제약회사 등)
9. 귀하가 생각하시는 경제 상태는? ① 넉넉한 편 ② 보통 ③ 어려운 편
10.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 10-1. 만약 종교가 있다면 귀하의 종교생활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있다.
③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④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1. 귀하의 형제, 자매 수는? (본인은 제외)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12. 귀하의 가족 중에서 의료종사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다음은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가치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답해주세요.

[윤리(倫理)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확고하다.
- ② 가끔 혼동된다.
- ③ 상황에 따라 바뀐다.

2. 귀하의 물리치료 윤리강령 인식정도는?

- ① 대체로 잘 알고 있다.
- ② 보통이다.
- ③ 대체로 모른다.

3. 귀하의 물리치료 윤리교육 경험은?

- ① 물리치료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② 물리치료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4. 귀하께서는 현재 물리치료학 교육과정에서 물리치료 윤리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충분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5. 귀하께서는 앞으로 물리치료 윤리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석 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6. 물리치료학이 매우 발달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잘 모르겠다.

7. 귀하는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8번 문항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9번 문항으로)

8.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실시할 경우의 문항입니다.

8-1.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받을 적당한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4학년

8-2.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의 적당한 학점 배정은? ① 1학점 ② 2학점 ③ 3학점

8-3.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어떠한 수업방식을 원하십니까?

- ① 이론
② 실습
③ 사례형(case) 분석
④ 학생 주도 학습

8-4.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윤리이론, 직업윤리, 성희롱 등

()

9.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써주세요.

()

부록 2.

「물리치료 윤리 교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조사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물리치료 윤리 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윤리 의식 정도를 알아보고 앞으로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귀하께 쓰이는 통계자료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지도 교수 : 김 명 철
연구자 : 안청좌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거나 답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가 지금까지 주로 거주한 지역은?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

4. 귀하의 학교는? ① 3년제 물리치료학과 ② 4년제 물리치료학과

5.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6. 귀하가 생각하시는 경제 상태는? ① 넉넉한 편 ② 보통 ③ 어려운 편

7.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 7-1. 만약 종교가 있다면 귀하의 종교생활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있다.
③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④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8. 귀하의 형제 수는? (본인 제외)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9. 귀하의 가족 중에서 의료종사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다음은 물리치료 윤리에 대한 가치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표시를 하거나 답해주세요.

[윤리(倫理)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확고하다.
- ② 가끔 혼동된다.
- ③ 상황에 따라 바뀐다.

2. 귀하의 물리치료 윤리강령 인식정도는?

- ① 대체로 잘 알고 있다.
- ② 보통이다.
- ③ 대체로 모른다.

3. 귀하의 물리치료 윤리교육 경험은?

- ① 물리치료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② 물리치료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4. 귀하께서는 현재 물리치료학 교육과정에서 물리치료 윤리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충분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5. 귀하께서는 앞으로 물리치료 윤리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석 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6. 물리치료학이 매우 발달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잘 모르겠다.

7. 귀하는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8번 문항으로) ② 필요하지 않다.(9번 문항으로)

8.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실시할 경우의 문항입니다.

8-1.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받을 적당한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4학년

8-2.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의 적당한 학점 배정은? ① 1학점 ② 2학점 ③ 3학점

8-3.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어떠한 수업방식을 원하십니까?

- ① 이론
- ② 실습
- ③ 사례형(case) 분석
- ④ 학생 주도 학습

8-4. 물리치료 윤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윤리이론, 직업윤리, 성희롱 등

()

9.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써주세요.

()